전남매일

www.jndn.com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제8797호 (음력 12월 17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 톡톡뉴스

새아파트 전기차충전기 2% 이상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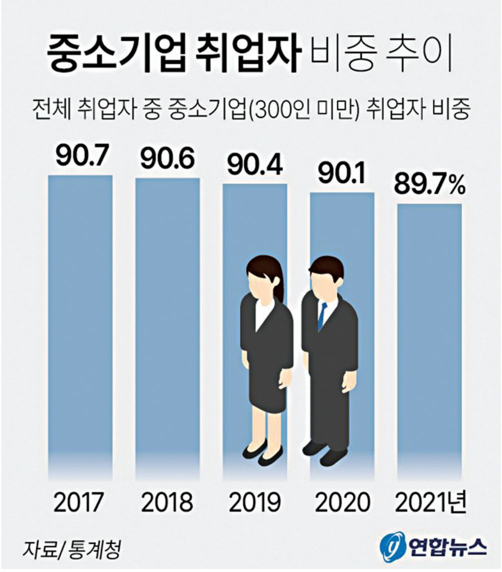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 그래픽 경제



지난해 중기 취업자 비중 89.7%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90% 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2,727만3,000명 중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445만7,000명으로 89.7%를 차지했다.

이 비중이 90% 선을 하회한 것은 2004년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도약"

2022년 지역경제인에 듣는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경영진 현장방문 등 노사합동 안전관리 강화

핵심 솔루션 확보 매출 1조5천억 목표

"창사 30주년을 맞은 2022년을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탄소중립 등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속에서 글로벌 에너지ICT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부터 중장기 경영전략을 구체화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경직되고, 탄소중립 중심의 에너지산업 정책,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 경영환경의 빠른 변화는 낙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위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KDN은 올해 핵심사업으로 ▲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사업영역 확대 ▲안전관리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정했다.

김 사장은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플랫폼, 데이터 등과 관련된 핵심 솔루션의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2030 중장기 경영전략은 '친환경·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선도 플랫폼 공급자'를 목표로 사업수행 패러다임을 기존의 O&M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플랫폼 중심의 전략을 제시했다"며 "미래비전을 위한 플랫폼, 클라우드, 데이터 등 4대 핵심의제를 설정해 이행계획을 구체화했다.사업 분야별 성장 전략과 핵심 솔루션 확보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1조 5,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한전KDN만의 사업영역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대규모 사업인 한전 차세대 업무시스템 구축사업, DR센터 구축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매출 8,000억원을 달성하겠다"며 "회사가 주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중소업체들과도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 자연스러운 상생협력이 이뤄지면서 이러한 사업구조가 KDN의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안전은 행복한 가정, 즐거운 직장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돼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경영진 현장 방문과 노사합동 안전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했다"며 "사업 동반자인 협력업체 직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한 한전KDN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에 ESG 중심의 사회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며 "한전KDN은 기존의 사회적 가치 전략을 ESG 전략으로 확대·개편하고 10대 추구 가치를 재산정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렴은 기업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이다"며 "에너지ICT 전문기업으로서 고유의 사업을 통해 에너지산업에 이바지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애란 기자

작년 광주·전남 수출 588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철강판 수출 '호조'…전년대비 43.9%↑

회복세 전망…공급망 차질 등 하방리스크 상존

지난해 광주·전남 수출이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회복세를 시현했다. 올해 역시 글로벌 교역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망 차질, 원자재가 및 물류비 상승, 코로나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가 다수 상존하고 있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및 2022년 수출환경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주력 품목이 선전하며 수출이 전년(409억 달러)대비 43.9% 증가한 588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자체 수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수출액 및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수치다.

지난해 유가 상승 및 전방산업 수요가 증가하며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판,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광주는 전년비 16.9% 증가한 161억 달러를 수출했다. 2014년 16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반등해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 및 생산이 회복되면서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대폭 늘어나 자동차부품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기차 수출 확대 등 자동차 시장에서 다수 호조 요인이 있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출고가 지연되며, 자동차 수출(54억 달러)은 전년과 보합세였다. 반도체(30.2%), 냉장고(30.4%) 등 주력 품목도 30%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산업 생산 및 투자 등이 확대되며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이 각각 전년비 18.7%, 68.9%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전년비 7.4억 달러 증가해 80.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남은 전방수요 회복 및 유가 급등 영향으로 전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석유제품이 114억 달러로 전년비 59.7%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및 일회용품 등의 수요 지속으로 합성수지 수출은 전년비 41.0% 증가한 101억 달러, 철강판 수출은 전년비 137.8% 증가한 72억 달러로 집계됐다.

글로벌 제조업 생산이 정상화되며 석유제품 및 철강재 등 생산을 위한 1차산품과 중간재 수입이 각각 전년비 59.5%, 72.5% 증가했으나, 자본재(-12.4%)와 소비재(-1.4%) 수입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전년비 17.9억 달러 증가한 58.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국내 총수출은 2%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과 주요국의 재정 지원 감소, 공급망 병목현상, 원자재가 및 물류비 상승 등 경제 하방 리스크가 다수 상존해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수출은 비대면 수요 지속, 친환경차 수요 확대, 석유화학 생산 확대 등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이 기대된다. 다만 공급과잉 및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의 수출 환경 악화 요인이 상존하며, 중국의 경기 성장세 둔화와 철강재 수출단가 하락이 예상돼 철강 수요 불확실성은 확대될 전망이다.

/김혜린 기자